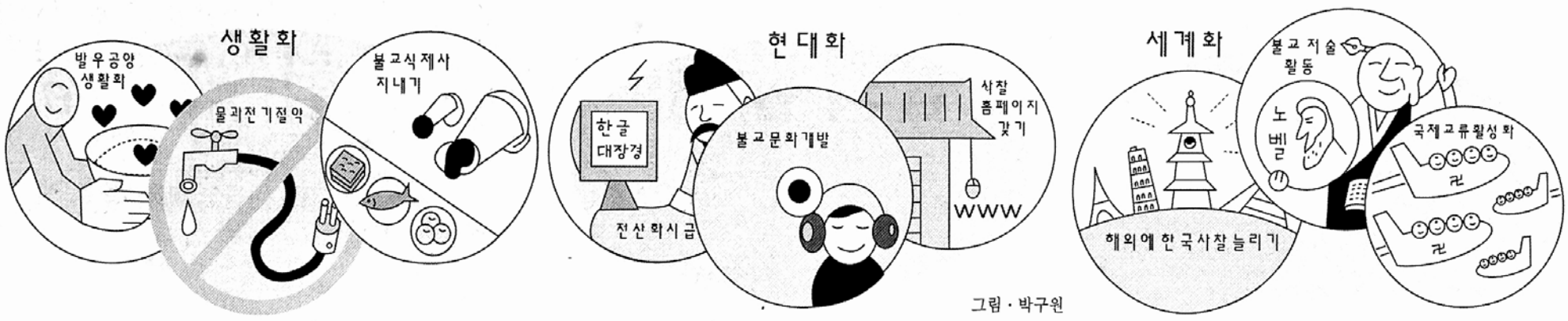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불교엔 인류 문명과 정신 이끌 힘 있는데…



'21세기는 불교의 시대' 현황과 과제

21세기의 성격을 한 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문명의 극한인가 하면 반문명의 그림자가 너무 짙고, 과학 기술의 발달이 모든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참으로 예측 불가능한, 복잡하고도 위험한 세기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환경 · 범죄 · 전쟁 등 눈에 드러난 문제만 보더라도 지금의 문명은 병들어 있다. 이러한 세상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가 바로 21세기인 것이다.

그러나 불교는 시대에 걸맞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불교계의 전체 흐름 역시 시대 흐름에 겉돌고 있다.

이에 현대불교는 창간 7주년을 맞아 불교가 21세기를 이끌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지를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측면에서 점검해 본다.

불교의 생활화

불자들의 신행 패턴이 바뀌고 있다.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소극적 형태에서 벗어나 수행에 열심인 불자들이 늘고 있다. 불과 10여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이런 변화된 모습은 충분히 감지된다. 가족법회를 보거나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법회를 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제사나 장례 등 가정의례를 불교식으로 지내는 경우도 많아졌고,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덕목인 육바라밀을 행하는 불자들도 늘어났다.

가족법회 · 조석예불부터 절약 · 하심 가르침 실천

불교의 생활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불자 인구를 감안하면 이런 불자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인지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 하더라도 의지 부족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이 훨씬 많다.

작은 부분부터 따져보자. 가정에서 물 한 방울 아끼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부터가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쓰레기를 줄이고, 폐품을 활용하며 발우공양을 하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오계를 지키는 것으로 생활을 바르게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역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으로 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법회나 불교식 의례, 합장인사 등 불교의식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중요한 것들이다. 수효사 신도인 장화숙 보살(65)은 "매주 토요일 저녁 가족들이 모여 법회를 갖다보니 부처님 가르침대로 서로 존중하고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가족법회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된 불교의례를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불교장례문화연구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한 달간 666명의 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3.3%가 불교식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수 이상의 응답자는 불교식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방식을 몰라 못하고 있다고 밝혀 불교의례 정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신도와 가족 혹은 직장 동료를 도반으로 여기는 의식, 불고서적을 읽는 습관, 식사 전 간단한 공양게송을 읊는 등 생활 자체를 불교의 가르침과 일치시키는 것도 불교 생활화의 핵심일 것이다.

승가-재가 교육의 질 향상 역경·포교 '시대와 동행을'

불교의 현대화

무엇이 불교의 현대화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속화'의 위험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의문을 함께 안고 현대화의 방향을 설정해 본다면, 불교의 근본정신과 종교적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현대사회와 걸음을 같이하는 일일 것이다. 그래야만 성불과 중생제도라는 불교 궁극의 목적도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포교, 교육, 역경, 문화, 불교의식 등 각 분야별로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현대화의 수준은 '걸음마' 단계다. '역경' 분야는 올해 5월 총 319권의 고려대장경 한글완역 작업이 마무리됐으나, 오역을 바로잡고 쉽고 바른 문장으로 다듬는 작업과 함께 전산화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교육' 분야에서 승가교육은 교육체계가 수립되고 각급 승가고시가 자리를 잡기는 했으나, 아직도 상당수 스님들의 자질은 고학력 시대의 신도들에게 사표가 되기에는 문제를 안고 있다.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신도교육도 서둘러야 한다. 교양대학의 질을 높이고, 다음달부터 의무 실시되는 종단 신도교육을 밀도 깊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포교는 청년의 경우 퇴보 양상까지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주5일근무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시대변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소모임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과 사찰에 맞는 특성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포교원 이상근 연구주임은 "지자체의 프로그램을 수탁운영하는 등 간접적인 형태의 포교로도 눈을 돌리고, 불교적인 분야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일반 문화와 접목된 프로그램으로 잠재적 불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불교문화 활동은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는 경향이 짙은데다, 지역과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계에 불교음악이나 무용 등 인재양성을 위한 기관이 한 곳도 없음을 지적하며, 불교문화가 현대화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소규모 전시회나 문화인사 초청 강연회 등도 활성화해 불교문화 향유층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과제다.

불교의 정보화 역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단적인 예로, 현재 사찰과 단체 등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200여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전체사찰 1만4천여개와 90여개 불교법인의 수를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사급 사찰이 앞장서 정보화 마인드를 키우고,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의식의 현대화는 아직 요원하다. 90년대 후반부터 일부 도심포교당이 한글법회를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그 수는 미미하며, 한글의식 역시 일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86%가 한글세대임을 감안한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통일된 의식마련은 시급한 과제다.

불교의 세계화

숭산 스님을 빼고 한국불교 세계화를 말할 수는 없다. 한국불교가 세계로 시야를 돌리기 시작한 시점은 70년대 초 숭산스님이 홍법원을 개원하고 해외포교에 나서면서부터였다. 숭산스님을 비롯해 몇몇 스님에만 의존하던 해외포교는 95년에 국제포교사가 처음으로 배출되고, 해외에 개원된 한국사찰에 대한 현황 조사가 실시돼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면서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 관련 저술들을 외국어로 옮기는 작업도 추진됐으며, 여기에 인터넷과 같은 온 라인 상에서 한국불교를 알리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한국불교를 세계화하는 노력이 계속돼 왔다. 또 진각종 복지재단이나 JTS 등의 단체가 국제난민 구호에 나서는 등의 활동도 한국불교를 알리는 데 적지 않은 몫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한국불교가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기본틀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조계종이 올해 실시한 '해외 한국사찰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개원된 한국사찰은 150여 개에 불과한데다, 이들 사찰의 포교대상이 현지인 20%, 교포 77%, 소외계층 3%로, 본래 목적인 현지인 포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불교를 알리고 있는 조계종 국제포교사 역시 90여 명에 불과하다. 이는 해외 주재 한국사찰 수의 절반을 겨우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며, 기독교 선교사 수의 3%밖에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한국불교 관련 저술은 코넬대 그레고리 교수의 〈태고어록〉과 뉴욕주립대 박성배 교수의 〈돈오〉 등 3~4편에 불과하며, 80년대 이후 〈미국 종교학회지〉 등과 같은 해외 유수 불교 학술지에 한국불교 관련 논문은 전무하다. 80년대 이후 이들 잡지에 발표된 논문은 2,636편인데, 티베트 불교가 전체 논문 중 27.2%를 차지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일본불교 연구도 전체의 23.5%로 중국불교(18.5%)나 인도불교(6.2%)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보니 한국불교에 대한 외국의 이해도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미국 펜실바니아대에서 강의했던 우제선 박사(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대다수 지식인들조차 한국불교를 중국불교나 일본불교의 아류 정도로 바라보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을 통해 한국에 불교가 전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외국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불교 알리기 '거북걸음' 국제 난민 구호활동 성과

불교의 세계화

교계 관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종단은 충분한 지원을 하고, 교계 각 단체와 학자들은 이를 토대로 홍보 및 연구작업에 몰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다피아, 달마넷, 국제불교연등회 등 10여개에 불과한 영문 홈페이지를 대폭 늘리고, 국제적인 문화 · 학술 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명우 · 오종욱 · 김주일 기자

봉 시흥 소래산 마애불상 보물지정 국태민안 시연 대법회 축



시흥 소래산 보물 제1324 호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청룡사
■ 후 원 : 시흥시청, 시흥사암연합회, 삼각산도선사, 경인방송
■ 행사일시 : 2001년 11 월 4 일 (일요일,음 9월19일)
■ 행사문의 : (031) 313-2993, (031) 404-0707 ~ 9
■ 행사장소 : 시흥시 소래산 마애불상 효일사지

국가문화재 보물 제1324호기념 영산대제! 님을초대합니다

법 어 서암(西庵) 前종정예하
추 진 위 한국마사회 윤영호 회장
스위스관광호텔 윤상림 회장
김의겸 교수(한양대학교)
청룡사 조실 진혜명 스님
삼각산 도선사 주지 광록스님
청룡사 주지 삼보스님
큰 스 님 차동광스님 혜덕스님 법공스님
인봉스님 보명스님
후 원 :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총 신도회
시흥시 사암 연합회
대한불교 연예인 자비회
청룡사 총 신도회
시흥시청

마애여래부처님의 유래

시흥지방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당나라 소정방이 나당 연합군의 일원으로 백제를 정벌하기 위하여 신라 무열왕 660년에 중국 산동성의 래주를 출발하여 덕적도를 거쳐 이곳에 도착하여 소래산을 보니, 산의 氣道가 비범하여 서기 가득한 장군바위에 마애불을 모시고 그 옆터 북동쪽 300m 지점에 曉日寺를 창건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 이로부터 소래산이 소정방의 이름에서 유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불교학자 권상로박사의 한국사찰전서 효일사조에서 부기하고 있어 위의 내용을 뒤받침 해주고 있다.

마애여래부처님의 영험담

소래산 마애보살은 영험하여 이곳에서 祈禱하여 이루지 못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近來 어떤 巫女는 이곳에서 기도하여 북한 김일성의 죽음을 미리 알았으며, 부도 직전의 사업체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 부도를 모면 했을 뿐 아니라 더욱 더 번창한 사람이 있으며, 노 보살님 한분은 이곳에서 기도하여 아들이 대령으로 진급하였다고 합니다. 과거 6.25전란 당시 영국군 캘러부대가 이 앞의 방아다리에 주둔중 105mm 곡사포를 여섯 발을 쏘았으나, 신기하게도 마애보살님의 상호를 피해서 맞은 흔적으로 크나큰 위신력을 보이시니, 혼탁하고 사악한 세상에 오셔서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원력을 세우신 마애보살이 여기 소래산 장군바위에 마애보살님으로 세간에 출현하심이니, 이는 보고 경배하는 마음만 갖더라도 그 공덕이 항하사겁이 지나도록 다하여도 말하기 어려울 만큼 많아서, 자식이 잘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니, 보고 들어 한 생각 동안이라도 우러러 예불하여 인간과 천상에 이익이 무량하게 합시다.

동참문(同參文)

천년 전부터 계시던 마애보살님이 국가보물로 지정되시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험하고 영험하신 마애보살님의 원력 가피력으로 국가보물제1324호로 지정 받아 기념 봉축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애보살님을 모시던 효일사의 "중창복원불사"는 여러 단체들의 개입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불자 여러분!!
저희 "천년고찰 효일사 중창복원 위원회"에 힘을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동참하겠다는 본인 의사와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업등을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2001년 10월 27일 까지 동참한 분들께는 행사 초청장과 2002년도 달력을 우송해 드리며,
2001년 11월 4일 행사이후 동참한 불자님들께는 마애보살님 보물지정 기념 2002년 달력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①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109-84번지
② 팩 스 : 031-311-4717
③ 이메일 : bigsambo@hanmail.net